마음이 있어도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 21면에서 계속

목사님의 고깃덩어리를 믿습니까? 고깃덩어리를 믿는 게 아니라 근본을 믿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돼서 돌아가는 그 근본, 한마음 주인공!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공! 자기 주인공만이 자기를 이끌어 준다는 얘기죠. 자기 마음의 주인만이 이익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바깥으로 '하나님 아버지시여!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찾는 것은 기복이고 미신인 것입니다.

바깥으로 찾는 것은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이름일 뿐이니까요. 나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졌으니까 나부터 알아야죠. 내 집부터 전화를 놔야 남의 집에서 전화도 오고 전화도 할 수가 있죠. 내 집에 전화가 없는데 어떻게 전화올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그리고 전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로부터입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엎드러졌으면 그 자리에서 땅을 딛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인생의 진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업식이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자기가 나쁜 짓을 했든 좋은 일을 했든 과거에 살던 그 차원대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겁니다. 현실에 그렇게 충동질하는 겁니다. 충동질한다고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을 다스려서 '주인공!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길을 잘 인도해서 빛나게 살게 해. 너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하고서 거기다 맡겨 놓는 겁니다.

공동묘지에 가 보세요. 남녀노소를 막론해 놓고, 남자 여자, 늙고 젊고 그것을 막론해 놓고 영령입니다. 그대로 영령이 돼서 수만 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어서 지구 바깥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지어서 창살 없는 감옥에서 애쓰는 것이니 더욱 이 마음의 도리를 알아야죠. 마음은 체가 없는 반면에 차원이 높게 어디든지 창살을 벗어나서, 이건 '이 방통 안을 벗어나서' 이 소립니다. 어디든지 마음은 갈 수가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말입니다. 가고 올 수가 있는 거,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오신통이라고 합니다. 오신통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그 업식을 다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입력된, 즉 시쳇말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카세트에 여러분이 살던 노래를 하나 가득 넣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카세트에다가 지금 현재의 노래를 다시 넣었을 때는 앞서의 노래는 다 없어졌죠. 없어지죠? 그러니까 과거의 그 악업 선업은 다 무너질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한테 모든 거를 맡겨 놓으세요. 끌고 다니는 이 몸뚱이는 집일 수도 있고 종일 수도 있어요. 마음의 주인이라는 것은 나를 영원히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끌고 가는 그 자체, 그것이 과거도 끌고 가고 지금 현재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잘 못 냈기 때문에 악과선이 두루마리로 돼서 입력이 됐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우리들의 만남이 있는 것도 거기에서 순종이 현실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카세트에 담긴 것처럼 돼 있으니까 거기다 지금 새 마음으로, 즉 말하자면 '마음의 주인! 너밖엔 나를 이끌어 갈 수 없어, 영원한 친구!' 하고 모든 것을 맡겨 놓으란 말입니다. 영원한 친구라고 해도 돼요. 주인공이 영원한 친구니까요. '영원한 친구! 너밖에 나를 이끌어 갈 수 없어. 너밖에 나를 돌봐 줄 수 없어. 내가 새 마음을 가지고 좀 더 빛나게 자유스럽게 살 수 있게 하는 거는 너밖에 없어.' 하고 거기다가 모든 거를 다, 이 세상에 난 거하고 뭐, 똥 누는 거니 자고 깨는 거니 모든 거를 거기다 맡기고 다 거기서 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자기가 자길 못 믿으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을 믿어야지, 바깥으로 부처님이니 하나님이니 온통 이름을 불러도 소용없어요. 자기 마음의 주인은 영원히 이끌어 주는 주인입니다. 진짜로 자기 내면세계에서 찾으세요. 내면세계를 믿으세요. 내면세계에서만이 여러분의 앞날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카세트에 녹음하는 것과 같아서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훌떡 벗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마음으로 지어서 '나는 그렇게 못 한다' 이렇게 하시지마는 예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몸뚱이로 문을 통해서 다니는 자는 소인이요 중생이요, 문을 통하지 않고 벽이나 봇장이나 아무 데로나, 마음대로 다니는 자는 바로 부처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부딪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내 탓이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탓이다.' 그러고 '한마음 주인공! 당신만이 얽히고설킨 이것을 다 풀어 줄 수 있어.' 하고, 울더라도 거기를 붙들고 울어야만 합니다. 이 말 저 말을 끌어다가 하면 오히려 더 산란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진짜 자기 주인공만 붙들고 사세요. 주인공! 자기 영원한 친구! 여러분이 그 도리만 찾는다면 여러분의 앞날이 참 밝아질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영원한 자기 친구를 찾아서 몸뚱이의 자유권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권을 얻을 때 몸뚱이는 스스로 자유권을 얻게 되고 여러분의 안팎이 다 잘될 것입니다. 마음도 바꿔질 수 있고 가정도 그렇고요. (중략)

마음이 있다고 그래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돌과 돌을 잡고선 탁 치면 거기서 불이 번쩍 일어나는데, 예전에 그걸 가지고 불을 켜고 살았죠? 부싯돌이라고 그랬죠? 지금 진리가, 돌아가는 원리가 그렇단 얘깁니다. 우리가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불이 들어올 수 없고 인연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화를 이루어서 발전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발전이 될 수가 없죠. 만남이 없는데 어떻게 발전을 합니까? 그래서 인연의 법칙은 그대로 발전의 원천인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정신계와 육신계가 그냥 합일해서 상응하고 작용하고 돌아간다면 큰일을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넓히고 넓혀서 생각을 내야 되겠죠. 넓히는 데는 마음은 체가 없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하고, 체가 없는 나가 체가 있는 나를 끌고 다닌다는 그 믿음을 꼭 가져야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소크라테스도 '너부터 알라' 고 했고 사대 성인들이 다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아서 세상을 알라' 이랬거든요. 자기를 모른다면 어떻게 남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남에게 길을 리드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부터 알고 나부터 믿고 내가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현실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더 생각해 보고 자문자답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상징으로 무궁화꽃에다가 횃불을 해 놓고, 횃불 위에다가 서로 입을 대고 있는 비둘기를 해 놨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즉 마음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해서, 불로 인해서 이 세상 모두 같이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같이 상응을 해야 발전도 하고 창조력도 기르고 창조도 할 수 있습니다. 과학도 물리학도 모두가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지 마음 떠나서는 없습니다. 생활이 그냥 과학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그대로 과학입니다. 과학이든 철학이든 어떠한 거든지, 마음의 한 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한 점! 볼 수도 없고 빛깔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마음의 한 점은 우주를 싸고도, 바로 삼천대천세계를 싸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떡 하나를 놓고 이 세상 만물만생을 다 먹이고도 되남았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든지 불교든지 타의에서 구하는 것은 다 공덕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정신계를 떠나서는 절대로 성공을 못 합니다. 이 세상 이치를 잘 보십시오. 깡통이면 깡통끼리 모이고 그러듯이 인간도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모이고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모이고 기사는 기사대로 모이고,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상점에 가 보십시오. 사과는 사과대로 놓고 배는 배대로 놓고 채소는 채소대로 놨습니다. 그거 한 가지뿐만이 아닙니다. 일거일동 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데서도 마음의 차원대로, 차원이 1차원은 1차원대로 모이고 2차원은 2차원대로 모입니다. 새들은 새들대로 모이고 인간은 인간대로 모이고, 짐승은 짐승대로 모이고 지렁이는 지렁이대로 모이고, 삼라만상의 모든 생물이 다 끼리끼리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한 가지를 잘 쓰면, 주인공에다 맡기고 잘 다스리면 차원이 그렇게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즉 평등공법으로서의 자유권을 얻을 수 있고 수레공법으로써 자유자재할 수 있는, 중용을 할 수 있는 묘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상징으로 해 놓은 것은 마음의 아름다움이, 아름다운 마음을 한생각 내면 불이요, 불이 일어나게 되면 사방에 모든 세상을, 아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그 불바퀴와 같으니까 모두가 같이 중용을 해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천지를 한마음에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천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또 내 몸뚱이를 숨기려고 애쓰지 마시고 떳떳하게 마음의 도리를 공부하세요. 그러면 알 바가 있을 겁니다. 마음의 도리를 공부한다면 마음은 이 세상 어디고, 수억겁이 걸리는 먼 데도 한 찰나입니다. 암흑 속에서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서 광(光)이 일어나고 그래서 은하계가 생기고, 또 그것이 생겨서 태양계가 생기고, 태양계가 생기면 또 은하계도 많아지고 혹성도 많아지고 별성도 많아지고 이러는 원인이 우리네 마음의 그 불씨에서 나온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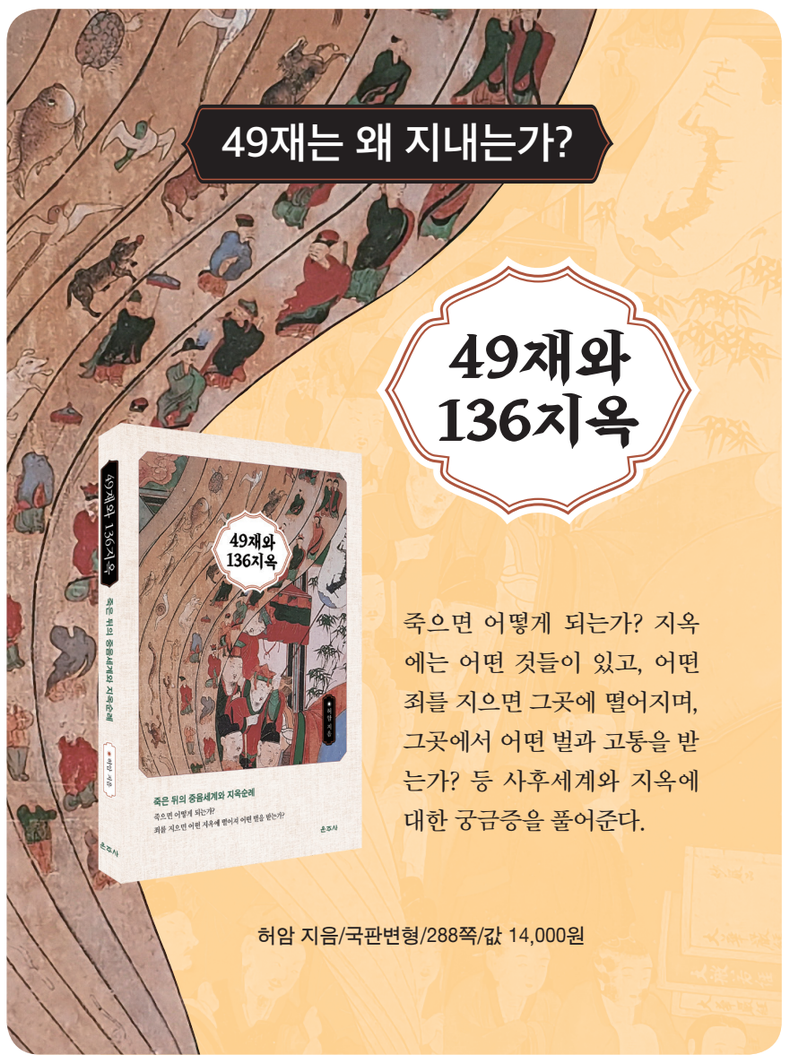
여러분을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긴 얘기와 짧은 얘기를 엄청나게 한다면 여러분이 오히려 '이게 정말 이럴까?' 하고 뒤로 물러설까 봐 말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한 것만은 다 이해해서 듣고, 모든 것은 바로 각자 여러분이 아니었더라면 이 세상이 없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각자 여러분이 없었다면 내 가정도 상대도 세상도 모두가 무효라는 거, 여러분으로부터, 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 생긴 것도 여러분의 마음 탓입니다. 자기가 마음으로써 끌고 다니는 육체를 함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제는 좀 더 비장한 각오를 가지시고 '내 마음의 주인, 영원한 친구! 그 친구가 나를 이끌어 가지고 갈 것이다. 나를 자유스럽게 만들 것이다. 나를 발전하게 할 것이다. 내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 것이다. 모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한마음의 주인공에 전부 가설이 돼 있으니까 둘 아니게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믿으세요. 모두 가설이 돼 있는 겁니다. 자식이라는 것도 알고 부모라는 것도 아는 그 마음의 줄이 바로 얽히고설켜서 가설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모든 주위의 환경도 전부 자기 탓이라고 돌리시고, 자기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고 '주인공!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지 마라!' 하고 거기다가 맡기세요. 진짜로 발전하고 경험을 얻고 실험하고 체험하고 나가시려면 꼭 내 주인공을 믿고 꼭 거기다 맡기시고 일임하고 주인공과 더불어 자문자답하시고, 울더라도 주인공을 잡고 우세요. 그런다면 좀 더 멋있는 살림살이가 형성될 겁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2년 5월 20일 국내지원법회 법문(천안 소년원생들에게 설하심)을 정리한 것입니다.

어떠한 부딪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내 탓이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탓이다.' 그러고
'주인공! 당신만이 얽히고설킨 이것을 다 풀어줄 수 있어.' 하고
울더라도 거기를 붙들고 울어야만 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옥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죄를 지으면 그곳에 떨어지며, 그곳에서 어떤 벌과 고통을 받는가? 등 사후세계와 지옥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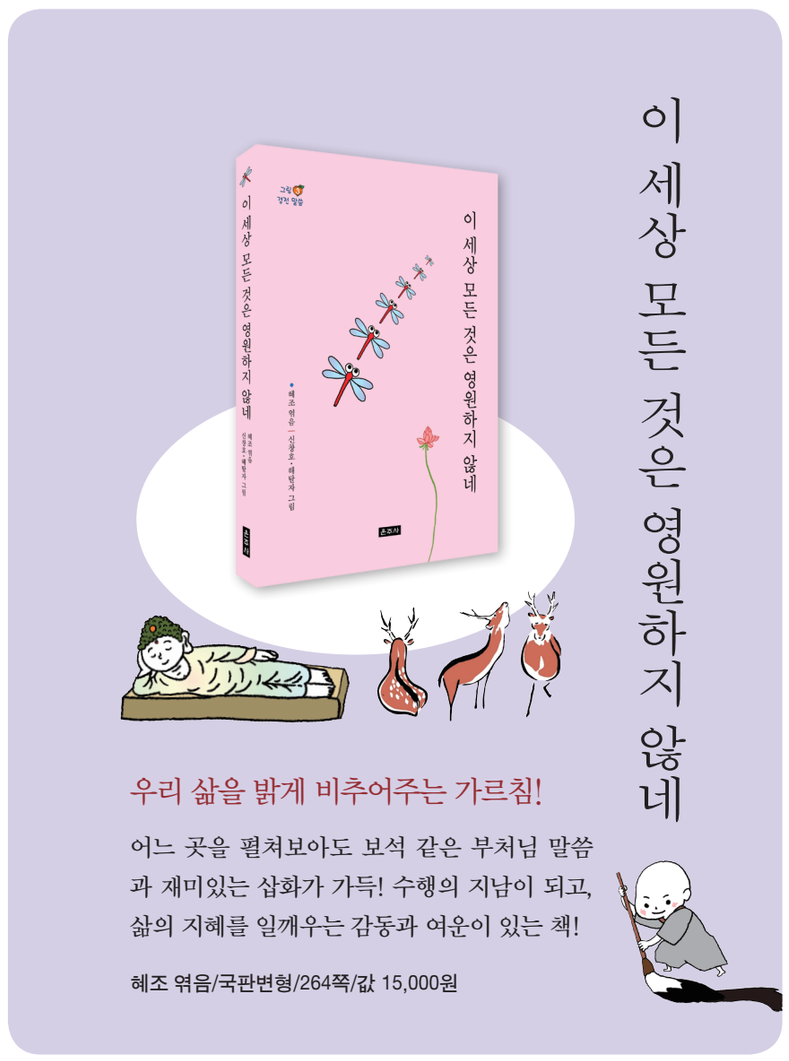
허암 지음/국판변형/288쪽/값 14,000원



진정한 정토불교의 가르침을 만나다!

정토불교란 무엇이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정토수행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왜 정토수행이 최고인가?

영화 지음/조소영 옮김/신국판/328쪽/값 15,800원



이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네

우리 삶을 밝게 비추어주는 가르침!

어느 곳을 펼쳐보아도 보석 같은 부처님 말씀과 재미있는 삽화가 가득! 수행의 지남이 되고, 삶의 지혜를 일깨우는 감동과 여운이 있는 책!

혜조 엮음/국판변형/264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